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발사를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 시험발사를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풍랑을 헤치고 료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험발사장소에도착하시어 새로 개발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의 전술기술적 제원을 료해하시고 시험발사를 보아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발사를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자 전략잠수함내에 전투경보가 울리고 함은 검푸른 바다속 탄도탄발사심도까지 신속히 침하하였다.

잠시후 바다면을 뚫고 불쑥 솟구친 탄도탄이 거세찬 불줄기를 뿜으며 창공높이 날아올랐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함내소음준위, 발사반충력, 탄도탄의 수면출수속도, 자세각 등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가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다는것이 검증확인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멋있소, 성공이요, 대단하오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전략적기도에 맞게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을 훌륭히 완성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

라를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더욱 억세게 다져가려는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고결한 애국심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공격형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할수 있게 된것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것에 못지 않은 경이적인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창건 70돛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이 마련되었다고, 그들에게 우리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수 있는 세계적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음먹은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훌륭한 군사과학기술적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함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을 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와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회의실, 혁명사적물 보존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프랄선들과 대형가공모선 《삼천리-1》호를 돌아보시면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증산경쟁열을 세차게 지퍼올릴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수산업의 발전추세와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어로공들이 당에서 정해진 출어일수를 무조건 보장하여 언제나 어장의 주인공, 만선의 주인공으로 될수 있도록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 등 기업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산 좋고 물 좋은 기막힌 곳에 위치한 신창양어장

이 한쪽의 그림같다고 하시면서 그 어디에 가도 볼수 없는 선군시대의 희한한 풍경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 양어못들과 철갑상어알깨우기장, 원소 등을 돌아보시면서 양어장의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퍼주신 양어혁명의 불씨를 료원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양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창양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나라의 양어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산하 7월18일소목장과 안변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산하 7월18일소목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이름을 지어주신 《안변소》를 보시면서 생물학적특성과 생산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와 세계적으로 이름난 소들을 3원교잡방법으로 육종해낸 《안변소》가 우리나라 기후풍토조건에 잘 순응되었을뿐 아니라 사양관리하기에도 좋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소고기를 공급시키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7월18일 소목장의 관리운영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목장에서 당의 방침대로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자연방목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먹이문제를 풀었을뿐 아니라 농산물생산량을 높인것을 비롯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해당 부문과 7월18일소목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소고기를 더 많이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산하 안변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안변양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간정형과 물고기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맑은 샘물이 흘러내리는 원소의 물길을 따라 가로세로 꾸려진 양어못들과 생산건물을 보시고 완전히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아담하면서도 풍치가 수려해졌다고, 우리나라 양어장의 본보기, 교육단위로 자랑할수 있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양어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2011년이후부터 해

마다 많은 물고기를 길러냄으로써 생산량을 4배로 끌어올린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소에 설치한 양어용물처리장치도 보아주시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어를 잘할수 있게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것을 비롯하여 이곳 양어장의 현대화사업을 적극 도와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 연구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안변양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나라의 양어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양어장에 필요한 료전기재들과 설비들을 당에서 마련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본사기자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의 과시

얼마전 공화국의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여 완전성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룩하였다.

함내소음준위, 발사반충력, 탄도탄의 수면출수속도, 자세각 등 탄도탄수중발사에서 제기되는 최신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한 이번 시험은 조선의 군사기술적위력을 또 한번 과시하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

《북극성-1》이라고 쓴 수중탄도탄이 바다면을 뚫고 불속 솟구치며 거세찬 불출기를 내뿜는 통쾌한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화국의 자위적힘에 대해 가슴뿌듯이 느끼었다.

그날 시험발사를 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하시며 이것은 인공지능을 쏘아 올린것에 못지 않은 경이적인 성과이라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수 있는 세계적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음먹은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잠수함은 물밑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상대측의 수송선단과 함선에 대한 불의기습공격을 진행하는것으로 하여 해전에서 중요한 군사장비로 리용되고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원자력기관과 미사일을 잠수함에 적용하여 잠수함은 핵무력의 3대구성요소가운데서도 기본을 이루는 골간무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전략잠수함은 물속에서 오랜시간 항행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상대측의 핵공격기지를 지휘추추, 산업시설 등 전략적대상물에 대한 불의타격을 진행할수 있을뿐아니라 탐지하기 힘

들고 타격의 신속성을 보장하는것으로 하여 위력한 공격무기로 되고있다.

현재 잠수함을 리용한 탄도탄수중발사를 진행할수 있는 나라는 미국, 로씨야,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 나라뿐이다. 핵을 가진 강국들만의 소유물로 인식되어왔던 전략잠수함의 수중발사라는 세계적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공화국의 군력은 최대로 강화되고 나라의 안전은 더욱 철벽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인공위성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쏘아올리고 핵을 보유하고 각종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보유하는데 이어 행성의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있는 무변광대한 바다를 마음대로 헤가르며 수중에서 전략잠수함을 리용한 탄도탄수중발사까지 할수 있게 되어 공화국은 최첨단의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다 구비하게 되었고 무서울것이 없게 되었다.

이제는 적대세력들의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선제공격기도, 붕괴압살전략도 더욱 여지없이 풍지박산나게 되었다. 공화국을 어제보려고 감히 선불질을 했다가는 언제, 어느 곳에서 바다수면을 뚫고 솟아오르는 선군조선의 강력한 잠수함의 미사일에 얻어맞아 만신창이 되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힘에는 힘으로. 조선은 이런 배짱으로 미국의 전횡과 침략위협에 맞서왔고 자체로 그 힘을 최대로 강화하였다.

이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계열생산에 들어가고 가까운 시일안에 실전배비되면 적대세력들의 뒤잔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매달아놓는것으로 되고 공화국을 해치려드는 침략세력들은 발편잡을 자지 못하게 될것이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등장함으로써 공화국의 안전, 민족의 안녕은 더욱 튼튼히 지켜지게 되었다.

나라의 군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기어이 승리를 안아오시려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압살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으로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오시었다.

이번에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을 개발할데 대해 발기하시고 걸음걸음이 끌어주시여 세계적수준의 전략무기가 태어나게 하신것도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최근년간 나라의 경제발전에서는 물론 군력강화에서도 특기할 사변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김정은원수님은 곧 조선의 힘이고 승리이시라는 불변의 진리를 푹푹히 새겨 주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더 큰 신심과 활기에 넘쳐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 매진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출판보도물들도 공화국의 경이적인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발사성공소식을 련일 크게 보도하면서 조선이 미국과의 군사적대결에서 결정적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하고있다.

천출유인이 계시고 강위력한 군력이 있어 공화국은 끄떡없고 강성국가건설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배심이 든든하다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완전성공소식에 접하고 흥분을 금할수 없다. 신문에 실린 발사장면은 볼수록 통쾌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다.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수중발사하는 것은 발전된 몇개 나라들에서만 독점하고있는 첨단기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자체의 힘과 지혜로 완성하였으니 조국의 무진막강한 힘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긍지로 높뛰는 흥분속에 더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력은 위대한 장군, 강철의 령장을 모실 때 담보된다는것

이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하시었다고 한다.

시험발사장에 나오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그려보게 되었다.

이 나라의 공민된 긍지로 가슴부풀고 배심은 더더욱 든든해진다.

선군조선의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더 잘 받들어나가겠다.

평양시 중구역인민위원회 부부장 김정 남

그 누구도 우리를 다 칠 수 없다

일망무제한 바다수중에서 전략잠수함이 발사한 탄도탄이 수면을 뚫고 번개같이 솟구쳐오른 장면을 TV방송과 출판물을 통해 본 나는 마음이 감개무량했다. 자체의 공격형전략잠수함에서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가 완벽하게 실현된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가하신것처럼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것과도 같은 쾌거라고 해야 할것이다.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이 완성되어 인민군대의 무장장비개발에서 현저한 전진이 이룩되게 되고 임의의 수역에서 마음먹은대로 침략전쟁도발소동에 미쳐날뛰는 적대세력을 제압할수 있는 강한 무기를 가지게 됐다. 전략잠수함이라고 하면 상대의 전략적대상물을 타격소멸하는 해상전투수단의 하나다. 오늘날 그것은 동력과 장비면에서 핵과 미사일을 가짐에 따라 핵무력의 3대구성요소의 하나로 되고있고 전투수행능력에 따라 공격형 또는 전략잠수함으로 운용되고있다.

인민군대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

시험발사는 적대세력의 전쟁위협과 군사적침해가 감히 있게 된다면 추호도 용납지 않고 단호한 징벌을 안기려는 공화국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자위력의 과시다.

그가 누구든 공화국의 신성한 령해와 령토를 단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겠다는 인민군대의 보복의지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인민군대는 이미 새로 개발된 반함선로케트시험발사에서도 성공해 먼거리에서도 적함선집단을 타격할수 있는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유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지도밑에 다종의 로켓들이 개발생산되어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주도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인민군대의 위력은 무진막강하며 무적의 강군을 가진 우리 나라는 난공불락이다. 바다속을 누비며 령해와 령토를 지키는 위력한 자위의 힘이 있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언제나 튼튼히 담보될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후보원사, 교수, 박사 박준 명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국수를 즐겨먹었다.

그중에서도 평양의 특산으로 소문난 평양랭면을 첫 손가락에 꼽고 제일 좋아하였다. 오늘날 평양랭면을 꼽을 때면 누구나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푸른 합각지붕을 한 민족적특색이 살아나는 옥류관이다.

평양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평양랭면을 맛보러 즐겨 찾곤 하는 집, 못 들리면 일생 한으로 여긴다는 옥류관은 평양의 손꼽히는 명당터에 자리잡고있어 더우기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있다.

대동강의 한복판을 가로질러간 옥류교를 건너면서 바라보면 머지않은 옥류벽우에 우뚝 솟아있는 옥류관이 한쪽의 그림자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낮에도 멋있고 밤에도 불장식을 하여 더욱 운치가 나는 옥류관.

그 옥류관의 발밑으로는 이름그대로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감돌아흐르고있다. 명당도 이만저만한 명당이 아니다.

옥류관에서 국수의 일품인 평양랭면을 맛있게 들면서 바라보는 주변경치는 또 얼마나 장관인가.

옥류관의 로대에 나가 바라보면 원경으로는 금시 피어오르는 모란꽃을 방불케 하는 모란봉과 실실이 휘날어진 능수버들이 구슬같은 물위에 비단필을 풀어놓은듯 하다는 풍라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

옥류벽우에 서있는 사랑의 큰집

도가 펼쳐져있고 오른편으로는 옛 고적들인 대동문, 련광정과 함께 대동강을 가로지른 옥류교가 주변경치를 한결 돋구어주고있다.

명당터라고 할 때 산수수려하고 물이 좋은 곳을 으뜸으로 꼽는다. 옥류관옆에는 갖가지 질병과 속달까지 고치는데 효험이 크다는 옥류약수터까지 있어 명당으로서의 가치를 더해주고있다.

옥류관이 자리잡은 자리는 오랜 옛날부터 8도강산의 손꼽히는 유흥지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오랜 세월 권세가들의 음풍영월만이 울려나오고 돈있는 사람들의 놀이터로, 유흥장으로만 되어오던 이런 명당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을 위한 옥류관을 세우도록 하시었다.

아직은 전쟁의 상처를 채 가지지 못했던 주제 47(1958)년 8월의 어느 이른 새벽 그이께서는 몸소 배를 타시고 경삼골어구와 반월도사이를 오랜 시간동안 오가시며 지금의 옥류관자리를 정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반월도앞의 한 바위우를 손으로 가리키시며 저 바위가 옥류바위인데 예로부터 그 주변일대가 경치좋아 명당으로 불리웠다고, 저 바위우에 인민을 위한 큼직한 료리집을 하나 지어주자고 하시었다.

그로부터 2년후 옥류관준공을 선포하던 날에는 몸소 《옥류관》이라고 이름도 지어 주신 수령님이시었다.

지난날 경치좋은 곳이라고 하여 돈냥이나 있는 량반들만

기와집을 쓰고살던 옥류벽우에 인민의 옥류관이 일떠섰으니 얼마나 대조적인가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하시여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웅건하게 일떠선 옥류관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었다.

어버이 수령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낳은 옥류관이 민족료리의 《원종장》으로, 인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기지로 더 이름나게 하도록 해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이시다.

그이께서는 옥류관을 훌륭히 개건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옥류관과 추녀를 잇대고 철갑상어와 자라료를 비롯한 희귀한 어종의 료리들과 이름난 료리들을 봉사하는 료리전문식당을 새로 지어 옥류관이 민족음식문화와 전통을 적극 살리는 대중급양봉사기지로써의 면모를 더욱 일신하도록 하시었다.

평양랭면과 고기쟁반국수는 물론이고 대동강승어국밥, 소

갈비국밥, 평양어죽과 녹두지진, 자라랑과 철갑상어료리를 비롯하여 옥류관에서는 인민들이 즐겨찾는 료리와 음식들을 봉사하고있으며 해외동포들과 외국사람들속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옥류관을 찾아 평양랭면을 맛본 남녘의 동포들은 이런 맛 좋은 평양랭면을 자기 가족들에게도 가져다 맛보게 하고싶다고 하면서 통일을 빨리 이루어 통일잔치를 여기 옥류관에서 크게 차리고 가족들과 평양랭면을 시원하게 들고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푸른 지붕을 한껏 펼친 옥류관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을 길이 전하며 사람들의 음식문 화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 월



옥류관

숨 고 한 인 덕 정 치 의 빛 발 아 래

지난 5월 5일은 저의 아버지(강태무)가 치욕스러운 식민지 고용군살이를 집어던지고 남조선에서 한개 대대를 이끌고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지 66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고보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속에 영광의

상상봉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온 아버지의 한생이 돌이켜져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습니 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 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없이 숭고한 의리와 동지애의 세계를 세상에 전하고자 붓을 들었습니다.

는 강태무동무가 젊은 사람으로서 용감하게 애국적행동을 하였다고, 그가 지난날 피괴군대대장을 하였지만 함께 손잡고 일할수 있는 혁명동지로 믿는다고 은정어린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전달받으며 아버지는 잘못듣지 않았는가 하여 두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구절구절 최상의 신임이 담겨지고 친어머니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말씀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함께 손잡고 일할수 있는 혁명동지!

그 부름이 누구나 다 받아안을수 있는 부름입니까. 아버지께로 말하면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백두밀림에서 손에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운 항일혁명투사도 아니고 새 조국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이름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치욕스러운 남조선군대의 대대장으로서 동족대결의 일선에서 있던 자기에게 수령님께서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할 혁명동지로 믿어주시었으니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높은 국가표창과 함께 권총, 의복류, 침구류를 선물로 안겨주시고 그의 휘하에서 싸우고싶어하는 소망을 헤아려 조선인민군 중좌의 군사칭호를 수여해주신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자 또다시 량대장으로 내세워주시는 분에 넘치는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국과 기쁨과 시련을 함께 나누며 가련한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과정은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속에 사상과 신념의 투사로 역세게 성장해온 나날이었습니다.

전쟁초기 아버지가 량대를 지휘하며 춘천, 흥천 등을 해방하고 남으로 공격속도를 높여나가던 1950년 8월초 어느날

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전선사령부로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전투임무가 하달 될것으로 짐작하고 서울로 되돌아가 전선사령부에 도착한 아버지는 그 자리에 굳어졌습니다. 그곳에 그동안 생사여부를 모르고있던 가족이 기다리고있었던것입니다.

의거입북할 당시 긴급한 정황으로 하여 서울에 남겨두고 왔던 가족, 많은 현상금을 내걸고 체포소동을 벌리는 놈들의 마수를 피해 자취를 감추었던 가족과 뜻밖의 상봉을 하게 되어 영문을 몰라하는 아버지에게 전선사령부의 지휘관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시신 조치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남쪽에 남아있는 저의 아버지의 가족들의 신상에 대해 한 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이 해방되자 전선사령부 일군들에게 강태무동무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의 가족이 서울에 있을수 있으니 그들을 꼭 찾아내어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거듭 당부하시었다고 합니다.

하여 저의 아버지의 가족을 찾기 위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20여일동안 애쓰던 끝에 저의 아버지의 가족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그 동무의 가족을 찾았단 말이요! 정말 반갑소, 그의 가족이 살아있다니 참 기쁘니다라고 하시며 먼저 안전한 곳에 집을 정해주고 아무리 전선정황이 긴급하다 하더라도 전선에 나가있는 강태무동무에게 연락하여 그가 서울에 들어와 가족들과 며칠간 즐겁게 휴식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는것이였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도 크고 고마운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에 아버지는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하 나만을 생각하며 피와 목숨까지 바쳐가며 싸우는 때에 사랑

하는 전사에게 헤어졌던 가족들과의 상봉의 기쁨을 한시바빠 마련해주시려 몸소 명령으로 멀리 후방으로 불러주시신 사실이 동서고금 그 어느 전쟁사에 있어본적있었습니다.

오직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화의 시련도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는 전설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의거장병들뿐아니라 그들의 부모처자들의 친어머니가 되시어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사랑에 고무되어 아버지는 적구에서 총횡무진하며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런 저의 아버지를 못내 대견하게 여기시며 최현, 오진우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결에서 그들의 투철한 사상과 신념을 배우도록 하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나자 28살이던 저의 아버지에게 려어 군인출신대의원들이 있는것을 보고있는 아, 우리 장군들이구만 라고 하시며 저의 아버지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는 그 은정, 강태무동무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므로 정권기관사업과 경제관리운영방법도 배우어야 한다 하시며 량강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장으로 내세워주시는 그 믿음...

정말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은 저의 아버지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의 길에서 남다른 행운속에 값있는 삶을 빛내어주시게 한 자양분이였습니다. 하기에 인생말년에 조국의 품에 안긴 최덕신선생은 젊어서 곧은 길을 걸어온 저의 아버지가 부럽다고, 자기는 한생 해메다가 그 길을 멀리 에돌아 늦게야 왔노라고 후회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크나큰 행복에 휩싸여 한달음에 달려온 저의 아버지를 보시고 두팔을 벌리고 환하게 웃으시며 오-강태무동무요?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소라고 하시며 저의 아버지를 한품에 안아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기쁜날에 울기는 왜 우는가, 장령복을 입은 동무들 보시 정말 기쁘다 지 바쳐가며 싸우는 때에 사랑

을 때 건강이 좋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가고 친어머니심정으로 일일이 헤아려주시었습니다. 건강하여 일을 잘하고있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지방당과 정권기관에서 저의 아버지를 잘 도와주도록 거듭 당부하시고서야 그곳을 떠나시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후 저의 아버지를 또다시 만나주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는 떨어져 계시는 저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남겨야지 그냥은 못떠나겠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타시던 승용차를 선물로 안겨주시었습니다.

날이 가고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하는 전사에게 돌려주시신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더욱 커만 갔습니다. 한평생의 지휘관이 더없이 귀중한 때에 저의 아버지의 건강을 념려하시어 즉시 입원시키고 온갖 치료대책을 세워주시며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시는 그 사랑,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에 나오시어 군인출신대의원들이 있는것을 보고있는 아, 우리 장군들이구만 라고 하시며 저의 아버지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는 그 은정, 강태무동무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므로 정권기관사업과 경제관리운영방법도 배우어야 한다 하시며 량강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장으로 내세워주시는 그 믿음...

정말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은 저의 아버지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의 길에서 남다른 행운속에 값있는 삶을 빛내어주시게 한 자양분이였습니다. 하기에 인생말년에 조국의 품에 안긴 최덕신선생은 젊어서 곧은 길을 걸어온 저의 아버지가 부럽다고, 자기는 한생 해메다가 그 길을 멀리 에돌아 늦게야 왔노라고 후회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강 윤 희 (다음호에 계속)

최 상 의 믿 음 을 주 시 며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해발 아래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조국통일위업의 갈피마다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과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들사이에 맺어진 한없이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세계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한때 조국을 위하고 겨레를 위한다고 했지만 시대의 변두리에서 헤매던 저의 아버지가 통일애국의 한길에서 삶을 값높이 빛내어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태양의 따사로움이 있었기때문입니다.

1949년 5월 8일부 《로동신문》에는 《의거부대 평양 도착! 30여만 시민 열렬히 환영》이라는 제목아래 남조선군 두개 대대가 평양에 들어서는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해방된 새 조선의 대지에 첫 자욱을 내디딘 의거자들에게 대한 충격적인 보도기사에는 두 대대장이 항일의 서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어리신 장군님과 함께 만드신 진달래꽃다발을 안고 활짝 웃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중 한사람이 저의 아버지 강태무입니다.

분계연선마을로부터 원산시를 비롯한 이르는 곳마다에서 난생처음 받아보는 환영열파에 아버지는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꿈만 같은 영광의 주인공이 된 아버지에게는 옳바른 애국의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식민지청년의 불우한 운명을 안고 일본땅에서 고향을 하

가 쫓겨나던 일이며 부산부두가에서 징용살이를 하면서 일제총칼밑에 신음하는 겨레의 참상을 보며 망국의 설움과 고통을 뼈에 새기던 일, 해방후 나라를 지킨다고 총을 잡았지만 그 총대라는것이 매국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부모처자와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야 하는 민족반역의 총대입을 깨닫고 정신적방황에 빠지던 일, 자주와 존엄이 살아 맥박치고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을 세우신 김일성장군님만을 따르는 길에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대대를 이끌고 의거용단을 내리던 일... 그 과정은 저의 아버지가 거치른 세파를 헤쳐오던 나날에 찾은 신조의 발현이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거입북할 당시 강태무선생

누구나 할수 있는 저의 아버지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의거부대장병들이 평양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특별열차를 보내주시고 환영대회도 열고 연도환영도 크게 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오매에도 그리던 공화국의 품에 안겨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조치와 전망

입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1)

공화국은 인민생활향상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오래전부터 경공업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비단옷을 입고 잘사는 윤택한 생활을 위해 서해한끝의 섬마을을 찾오시어 비단섬의 새력사를 펼치시었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경공업발전과 관련한 회의도 여시였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경제건설로선을 제시

하시고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경공업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아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대로 나라의 경공업이 가까운 몇해이간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경업을 농업과 함께 강성국가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제 102(2013)년 3월 적대세력의 준동으로 우리 나라에는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어있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준엄한 시기 평

양에서 전국경공업대회를 소집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경공업발전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사업인 동시에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사업이며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경공업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대회가 진행된 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경공업공장들을 찾

고 또 찾으시였다. 주 제 1 0 3 (2014)년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울리고있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사회주의전진의 동음소리라고 생산자들을 고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해야 인

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릴수 있다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이자 사회주의호전의 제1선참호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 령도자가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있는가를 잘 말해주었다.

지난 4월 새학년도 개학을 계기로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해입힌것은 경공업부문에 서 이룩한 큰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국가의 후대중시, 교육중시정책과 인민적시책의 반영이다.

입는 문제해결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평양양말공장에

도 어 려했다. 어느날 그 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질종고색갈도 고우며 무늬도 각각인 제품들을 주의깊게 보시며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는 양말이 대량 생산되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양말공장에 남기신 일화가 있다.

제품들을 소개하는 견본실에서 갖가지 양말들

을 보신 그이께서는 《뿌양말》도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뿌양말》도 있다는것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만면에 미소를 담으시고 동심에 맞는 질종은 양말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였다. 양말에 새긴 동화적인 그림들을 보시면서도 인민들의 기호와 정서를 생각하신것이었다.

이렇듯 경공업부문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속에 평양인견사공장이 새로 조업하고 함경남도 함흥도방직공장에 능력이 큰 편직사 생산공정이 새로 꾸러졌으며 함흥편직공장이 현대적으로 일신되였다. 또한 평안북도 박천전직공장에 생산성이 훨씬 높은 현대적인 비로도생산공정이 꾸러지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인민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이불생산공정이 새로 꾸러져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 이룩된 경공업부문의 성과들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폭발적인 경공업의 발전을 구가하고있다.》고 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정치하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범이 일어나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 처장 김인수

로동생활에 필요한 온갖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국가가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

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며 각종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있다.

또한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계기로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해 제17차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에 참가한 공화국선수들이 여러 종목들에 걸쳐 좋은 성과를 거둔데 이어 올해 들어 장애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장애인에

솔추진들에 참가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준것은 공화국의 장애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지구상의 도처에서 사회보호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활처지의 악화로 고통

에 시달리고있지만 공화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아뿐아니라 전국도처에 있던 근심걱정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장애인정책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을 적극 늘이고있다.

장애자보호를 위한 조치와 전망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미술가들

절세의 위인들께 끝없이 매혹되어

김일성상제 판인이며 인민예술가인 화가 정관철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절세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귀하신 영상을 불멸의 화폭으로 형상한 화가이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1945년 10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 중대회장에 모셨던 첫 초상화를 형상하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셨었다.

해방된 조국강산에 울려 퍼진 불멸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온 겨레가 경탄과 흠모의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던 절세의 애국자이시

며 청년장군이시었던 수령님의 태양같은 모습. 해방전 미술에 대한 포부를 안고 서울과 일본 도쿄, 고향인 평양을 오가며 팔팔이로 미술을 배운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미술가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었다.

1946년 5월 어느날 정관철에게는 또다시 감격적인 행운의 시각이 왔다. 그는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인 조기천과 함

께 그이께서 계신 저택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새 조선에서 막들처럼 굴러다니던 작가, 예술인들을 친히 몸가까이 부르시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보천보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위대한 항일의 령장을 모신 자리에서 정관철은 스펀럼없이 열정에 넘쳐서 수령님의 영상을 스케치하였다. 이것은 너무나

도 꿈같은 일이었고 화가로서는 천만번중에 다시 없을 행운의 순간이었다. 너무나도 커다란 충동으로 걱정의 시각을 새겨가던 정관철은 역사적인 보천보전투를 화폭에 담기 위해 1948년에 보천보에 대한 현실취재를 떠났으며 유화 《보천보의 해발》을 내놓았다.

그가 창작한 《보천보의 해발》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고 그이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감동되어 착상해낸 력작인것이다. 1949년 그는 북조선미술가동맹대회에서 미술가동맹위원장으로 선거되었다. 그는 이때부터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35년간 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사업을 하면서 민족미술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는 언제나 창작의 붓을 들고 시대가 요구하는

미술작품들을 수없이 창작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처음으로 화폭에 형상한것을 비롯하여 그는 생의 전기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수많은 기념비적 작품들에 모시었다.

유화 《보천보의 해발》(1948년), 《조국광복을 위하여》(1962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6년),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렵니다》(1982년)를 비롯한 많은 기념비적 작품들을 형상하였다. 그가 생의 마지막까지 들고 창작하던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작품은 1984년에 그의 아들이 완성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싸우는 군대와 인민을 수놓으려하는 수많은 선전영상을 그린 그는 전후에도 조국의 벽찬 현실을 보여주는 건설장들, 아름다운 자연경광들을 쉬임없이 찾아다니며 화폭에 담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가 사망하였을 때 못내 애석해하시며 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우리당의 인텔리대오를 처음으로 꾸리시던 때부터 만나 키워오신 미술가이라고, 그는 유화 《보천보의 해발》을 비롯하여 좋은 미술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고 값높은 평가를 주시였으며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었다.

최명수



유화 《6도구 전투 전적지》(1959년)



유화 《밀밭속에서》(1960년)



유화 《탈곡》(1956년)

활발히 진행되는 경제협력과 교류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는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었다.

평양국제상품전람회(PITF)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력, 석탄, 철도, 채취, 기계, 과학기술, 농업, 경공업 등 여러 분야의 앞선 기술과 제품들을 전시하고 선진, 소개 및 교류를 진행하는 국제적 회합으로 되고있다.

평양국제상품전람회는 조선국제전람회(KIEC)가 주최하고있다. 해마다 5월과 9월 평양에서 열리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는 그 차수가 늘어날수록 규모와 질적수준이 현저히 향상되고있다. 이는 참가한 나라와 회사수들이 해가 바뀔수록 늘어나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번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는 공화국과 뉴질랜드, 도이칠란드, 로세야, 말레이시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캄보자, 프랑스,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대북의 회사들에서 출품한 각종 상품들이 전시되었다.

조선국제전람사의 한 일군은 평양국제상품전람회는 나라의 대외무역

발전시키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전람회를 통한 수출, 수입, 임가공, 합영합작 등 무역거래계약액수가 장성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기업체들사이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무역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설명회와 면담, 제품소개 등 호상접촉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국 광둥미디어항공각설비유한공사 경리 정봉은 전람회에 처음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조선은 투자조건과 전망이 대단히 좋다. 앞으로 경제협력과 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말하였다.

중국 북경성정부공문화발전유한공사 총경리 서소동은 《천백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중국의 부귀흥도자기를 가지고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전람회에 참가하기 전에 나는 조선의 최고경도자라고는 (천지방원-오복)이라는 도자기를 선물로 올렸다. 조선의 경제적잠재력과 문명한 조선인민의 모습에 감탄하였다.》고 말

하였다. 말레이시아 퍼더블유아르식로공업유한회사 총사장 리에우 임감도 이번 전람회기간에 많은 기업들과 경제적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만족해하였다.

이번 전람회에 참가한 나라들의 수백여개에 달하는 회사들의 총경리, 사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평양국제상품전람회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회합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참가열의를 단순히 고객들에게 자기의 상품을 더 많이 광고하고 판매하기 위한 기업인들사이의 경쟁으로만 볼수 없다.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이, 세계경제과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화국의 자립경제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이들을 평양으로 더욱 떠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스위스의 한 회사성원은 《조선의 과학기술력량은 막강하다. 조선은 세계시장진출능력이 매우 크다. 이 수준이면 국제시장에 나가 능히 다른 나라 제품들을 압도할수

다.》고 말하였다. 다른 나라의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꼽는 공화국의 좋은 투자조건은 공화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있다는것, 경제적잠재력이 크며 우수한 과학기술력량을 가지고있다는것, 신용이 높다는것 등이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생산감퇴와 기업파산, 실업사태를 겪고있지만 공화국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위에서 날로 발전을 이룩해가고있는것이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공화국인들의 높은 관심사도 엿볼수 있었다. 지난 시기에는 무역일군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주로 참가했다면 최근에는 공장, 기업소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가하였다. 여러 분야의 공장, 기업소 관계자들은 전람회장을 찾아 다른 나라들의 제품에 대해 료해하기도 하고 각국의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있었다.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된 기간은 3박4일밖에 안되었지만 많은 기업인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갔다.

본사기자 김춘경

손님들로 흥성인다

—보통강수산물상점을 찾아서—



특음이 질어가는 봄의 정취를 한껏 느끼며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평양 시내에서 사람들이 즐겨찾는 보통강수산물상점이었다.

건물의외부부터가 특색이 있는 이곳 상점에 들어서니 1층홀에서는 금방 바다에서 건진것 같은 청어, 참가재미, 낙지, 문어, 광어, 성게, 조개, 숭어를 비롯한 질좋은 수산물들을 사람들이 사고있었다.

안쪽으로는 말린 수산물들과 명란, 조개, 낙지, 바다나물, 통줄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맛 좋고 영양가높은 수산물가공품을 넣어둔 작은레스토랑과 선행동매장들이 화려한 조명속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가공품을 고르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고있었다.

안온하면서도 화려한 감을 주는 바다라일들과 천정의 푸리등, 장식띠들을 비롯한 건물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상점이었다. 밀차와 바구니를 가지고 수산물을 고르는 손님들로 매장은 흥성거리고 손님들에게 물고기들의 특성과 조리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기도 하고 밀차에 한 바구니씩 싣고나온 수산물들을 봉사해주는 이곳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기쁨의 미소가 떠날줄 몰랐다.

대중식사로 되어있는 2층에서는 각종 물고기탕과 회국수, 여러가지 수산물회와 튀기류들을 봉



사하고있었다. 이곳에서 국수기계와 요리가공용불판, 만능구이로, 집기류세척기와 적외선소독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주방설비들과 도구들을 일식으로 갖추어놓고 음식의 질과 맛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 령 배부윈도 만나보았다. 《여기서는 수산물을 어떻게 판매하고있습니까?》

《우리 상점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 2월 21일 상점이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하루도 번지 않음으로 계속 오고있습니다.》(권성일)

《이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만세 만만세!》(전영근)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전정진)

본사기자 고영숙

상업봉사활동을 잘해나가고있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가닿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김은주, 박영미, 김순정을 비롯한 이곳 봉사자들의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를 받아본 손님들은 격동된 심정을 담은 글들을 상점에 남겼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애, 이것은 우리 조국의 앞날의 휘황한 등대입니다.》(박철진)

《보통강수산물식당은 멋진 식당입니다. 조화롭게 장식된 건물이나 접대원들의 고상한 봉사는 식당의 풍경을 한껏 더해주고있습니다. 계속 오고 싶습니다.》(권성일)

《이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만세 만만세!》(전영근)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전정진)

본사기자 고영숙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

최근 공화국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에서는 《도발》이니,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위반》이니 하는 피이한 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공화국이 하는 일을 덮어놓고 시비하는 못된 근성의 발현이고 최지은자들의 공포심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 시험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이다. 어떤 나라든 자초를 무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당당한 주권국가인 공화국이 자위를 위해 탄도탄수중발사 시험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누구도 이래라저래라 시비할 수 없다.

공화국이 미국의 항시

적인 군사적 위협, 핵위협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 다. 이는 사실이다. 최근년간에만 허더라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공화국의 평화적호소를 외면하고 대규모북침불장난연습을 계속 벌려 공화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해왔다.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이 뺨질나게 남조선과 주변바다를 돌아치며 핵전쟁위협을 질게 드러내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핵과학자회보도 얼마전에 내놓은 핵무기관련보고서에서 미국이 북조선을 제압하기 위해 핵무기발사가 가능한 대형잠수함 8척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도 스쳐지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속에서 공화국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증대되는 침략위협에 맞서 자위적국방력을 백배로 강화해나가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민족의 안녕과 존엄을 지키

려는 너무도 당연한 행동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이니, 《결의위반》이니 하는 것은 도적이 도둑이야 하는 격이고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맥빠진 푸념에 지나지 않는다.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발사가 그렇게도 무서우면 공화국을 해치려는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을 중지하면 그만일 것이다. 저들은 침략적 목적을 위해 합동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 무력증강을 하다못해 위협천만만 《싸드》도입까지 현실화하려고 하면서 누구에게 발사시험을 하지 말라고 훈시질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논리이다.

공화국이 전략잠수함의 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 성공한 탄도탄은 공화국에 자위의 굳건한 보검이고 침략자, 적대세력에게는 무서운 파멸을 가져다 주는 위력한 무기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스스로 화를 초래하지 않으려거든 하루빨리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업 살정책을 버려야 한다.

김광률

모략소동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의 《사이버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있다.

바로 얼마전에도 남조선보수당국은 《현재 북의 IT해킹인력이 900명이거나 늘었다.》느니, 《북의 IT해킹인력은 (한국) 수력원자력과 (코레일)을 계속 공격한 조직》이라느니 뭐니 하고 헛뜬어댔다.

그 무슨 《북핵위협》이요, 《미싸일위협》이요, 《GPS전과교란사건》, 《무인기사건》 등 제 집안에서 비정상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무작정 《북소행》설로 밀어붙여왔다. 이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이다.

실례로 지난 2013년 《3.20해킹공격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남조선당국은 《북소행》일수 있다는 결론부터 내리고 전면수사놀음을 벌렸으나 해킹공격이 제3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명되고 나중에 《후이즈》라는 이름을 가진 《국제해커팀》이 저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통에 세계면전에서 특특히 망신당할 적도 있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아대신 남조선당국은 지난 해말 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사건이 터지자마자 근거도 없는 여론을 내리면서 《북소행》으로 몰아붙여왔다. 그러나 내외여론들은 한결같이 남조선당국이 《해킹원점》로 국내가 아닌 심양지역을 거론할 때부터 《원전 해킹》을 북조선과 연관시켜보려는 인식이 확연했다. 《집안에서도 모자라 동족대결소동을 제3국에까지 확산시켰다가 국제적망신을 자초하였다.》고 조소하고 있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이 입만 벌리면 떠드는 《사이버테러》니, 《사이버공격》이니 하는 것들과 공화국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올해 정초 미국에서 일어난 《쏘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고강도추가제재를 선포하였을 때에도 공화국정부는 그를 배격하는 원칙적립장을 밝히었으며 그 부당성에 대하여 립중하였다.

미국의 억지주장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에서도 부정적인 립장을 공식 밝혔고 미국과 서방의 주요 언론들과 한다하는 전문가들속에서도 《쏘니 픽처스》 해킹사건은 《북조선의 소행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지난 시기 《7.7전산대란》, 《농협전산망마비사건》, 《3.20해킹공격사건》, 《GPS전과교란사건》, 《무인기사건》 등 제 집안에서 비정상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무작정 《북소행》설로 밀어붙여왔다. 이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이다.

실례로 지난 2013년 《3.20해킹공격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남조선당국은 《북소행》일수 있다는 결론부터 내리고 전면수사놀음을 벌렸으나 해킹공격이 제3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명되고 나중에 《후이즈》라는 이름을 가진 《국제해커팀》이 저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통에 세계면전에서 특특히 망신당할 적도 있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아대신 남조선당국은 지난 해말 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사건이 터지자마자 근거도 없는 여론을 내리면서 《북소행》으로 몰아붙여왔다. 그러나 내외여론들은 한결같이 남조선당국이 《해킹원점》로 국내가 아닌 심양지역을 거론할 때부터 《원전 해킹》을 북조선과 연관시켜보려는 인식이 확연했다. 《집안에서도 모자라 동족대결소동을 제3국에까지 확산시켰다가 국제적망신을 자초하였다.》고 조소하고 있다.

실태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여전히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다 못해 《북의 싸이버전능력》이 어떻다느니, 《심각한 위협》이니 뭐니 하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걸으로는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이니 뭐니 하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상전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편승하여 동족대결정책에 본심을 두고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준다.

남조선당국이 평화적인 인터넷공간까지 반공화국대결공간으로 써먹으려고 획책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비렬한 동족대결정책의 진면모를 까발리는 공간으로써에 달려 있을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모해하는 반공화국대결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는 것은 스스로 제 함정을 파는 길이라는 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남조선당국자들이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감행하곤 하는 배라살포와 같은 대결책동을 합리화할 때마다 약국의 감초마냥 내대는 말이 있다.

《표현의 자유》, 마치 남조선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국이 나서서 배라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허황한 꾀병에 불과하고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에 실지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과 국제사회의 비난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4월에 남조선 《국회법조사처》가 공개한 《언론자유도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남조선의 언론자유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가운데 30위에 그쳤다. 또 국제언론단체인 《프리덤하우스》, 《국제적언론사회의》도 남조선의 언론자유도를 2006년에 비해 무려 40여위나 떨어뜨려 평가하였으며 《눈에 띄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언론인들도 《언론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등 내외의 공정한 여론은 남조선의 표현의 자유가 탄압당하는 인권불모지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표현의 자유는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더 우습하게

《표현의 자유》의 실상

말살당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지난 2월 인터넷언론인 《자주민보》를 《보안법》에 걸어 강제폐간한 사건이다. 보수패당은 《자주민보》가 《보안법》상 《리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51건 게시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내세워 5.16쿠데타 하루 뒤인 1961년 5월 17일 《민족일보》를 강제폐간한 이후 두번째로 되는 언론폐간을 감행했다.

남조선당국은 북에 대한 객관적인 리해를 돕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해온 《자주민보》와 같은 언론, 인터넷홈페이지들을 《종북》, 《친북》의 감투를 뒤집어씌워 짓밟는가 하면 집권자의 죄행과 사화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부패를 폭로단죄하는 량심적인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가차없는 탄압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남조선검찰은 2012년 7월 인터넷언론인 《서울의 소리》 편집인인 미국의 인터넷신문에 실린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근혜의 의혹들》이라는 글을 그대로 실었다고 하여 그에게 징역 6년형과 재산몰수를 구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공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실례를 들어가면서 비난과 규탄을 퍼부

어다. 그에 의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세월호참사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추모시위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기소되고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문창국의 비행을 방송에서 폭로한 시사평론가와 언론인들이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남조선에서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말살행위는 집권자에 대한 정정당당한 비판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 한 외신의 서울지국장인 《세월호참사당일날 7시간 가량 현 집권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사생활의혹을 기사화하여 내보내자 검찰이 불에 덴것처럼 날뛰면서 그 외신기자를 기소한다. 어쩐다 하면서 야단법석하여 국제적망신을 특특히 당한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은 《(대통령)의 과잉반응과 검찰의 과잉총성이 사태를 망치고 국제적조롱거리가 되었다.》, 《언론자유하락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개탄하였었다.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 각지에서 활발해지고있는 반 《정권》 배라투쟁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의 여러곳을 비롯하여 대구와 광주, 부산 등 남조선 곳곳에서는 최근 집권자의 죄행과 공약파기 등을 비판하는 배라들이 때없이 뿌러지고 있다. 배라들에는 《박근혜도 (보안법) 위반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원법 위반, 모두 유죄판결!》 등 지극히 정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부르짖던 남조선당국은 집권자를 비난하는 배라살포관계자들을 체포하는 한편 일선경찰서들에 《처벌법규와 대응요령》이라는 문서까지 만들어 하달하는 등 폭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재미교포여성과 통일운동가녀성이 자기들이 목격한 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달하는 강연회가 곳곳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러자 남조선당국자는 청와대에서 있는 회의에서 직접 《최근 소위 (종북분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녀성들의 사소한 표현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하기는 집권자가 내뱉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가 지나치다.》는 한마디에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대통령》을 《불륜》하게 하는 사람들을 단치는대로 잡아가두고있으니 더 말할 무엇하랴.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해지는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말살행위를 두고 심각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 반 《정권》 배라투쟁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의 여러곳을 비롯하여 대구와 광주, 부산 등 남조선 곳곳에서는 최근 집권자의 죄행과 공약파기 등을 비판하는 배라들이 때없이 뿌러지고 있다. 배라들에는 《박근혜도 (보안법) 위반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원법 위반, 모두 유죄판결!》 등 지극히 정당한 내용을

우리 민족의 민족익화에 《두 사찰의 개》라는 것이 있다.

동쪽에 있는 사찰과 서쪽에 있는 사찰을 오가며 얻어먹던 개 한마리가 있었는데 끼니때면 동쪽사찰에서는 서쪽사찰에서 먹이를 주었겠거니 하고 서쪽사찰에서는 동쪽사찰에서 주었겠거니 하면서 서로 먹이를 안 주다니니 그 개는 항상 굶주렸고 나중에 는 굶어죽었다던지... 주대없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저 먹울것도 못 찾아먹는 가련한 대상을 풍자한 이야기이다.

미국과 일본을 찾아가다며 야양을 떨었지만 종당에는 속웃까지 다 벗기우고 남조선보수집권세력에 꼭 들어맞는 일화이다.

북남관계개선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호소는 외면하고 《북조선붕괴》, 《빛살림없는 공조》를 떠드는 미국에 추종하여 이해의 벽두부터 또다시 전쟁화 약내를 풍기며 대결바람을 일으킨 남조선보수집권세력, 독도문제와 일본군성노예문제 등 군국주의광기를 부려두 《미래지향적동맹》이 더 절실하여 《과거는 과거대로 놔두자.》며 백년속적 일본과 손잡는데 열을 올렸던 남조선보수집권세력, 하지만 그 결과는?

얼마전 미국과 일본은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안중에 없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저들의 배만 불리었다.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해외침략의 문을 열어준 문서로서 미국은 자기의 《대아시아중시전략》 실현을 위한 실리를 얻게 되고 일본은 《보통국가》로 둔갑하여 아시아재침의 날개를 얻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만이 아닌 《평시》에도 미군이 진행하는 모든 군사작

전과 훈련들에 참가하고 조선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 아무때든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과의 군사적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그래도 서편짜리 자존심을 살려 《주권을 존중해 달라.》고 애걸하였더니 미국과 일본은 《3국의 주권존중》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세살내기 달래듯 얼려넘기었다.

전시작전지휘권을 미국에 송두리채 넘겨버린 남조선당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 《자위대》 무력이 수시로 남조선과 주변해역을 드나들어도 그를 멈춰세울 명분도, 법적수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눈은 머리를 쓸어주며 눈알을 뿔어버리고 다 른눈은 등을 두드려주며 염통을 뜯어낸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군사적긴장상태가 조성될 경우 무력공격을 받는다 해도 남조선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가있으니 독자적인 대응도 할 수 없고 미국은 일본편을 들면가 그렇지 않다 해도 강 건너 불보듯 할 것이 분명하다.

그뿐인가.

조어도럴토를 둘러싼 일본의 령토분쟁에서 미일의 편에 서게 되면 대방을 자극하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며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품들어 만든 《신유라시아건설계획》도 그 전망이 어두워질 것은 뻔하다.

이런것으로 하여 남조선정계는 그야말로 아우성이다.

언론들에서 지금 남조선이 주변나라들의 《군비경쟁의 수용물》에 어차피 말려들게 되었다. 《외교, 안보문제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는 우려와 비난이 터지고

《외교표류》, 《외교전략부재》, 《역동외교》, 《외교교립》, 《외교실패》라는 처절한 목소리가 그칠새 없이 나오는 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동맹국》들에게서는 소박당하고 조선반도 주변국들에게서는 배척받을 형편에 놓인 남조선보수집권세력, 이런 경우를 우리 속담에선 개밥의 도토리신세라고 하고 서방식으로 말하면 샌드위치신세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제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고 응답한 대접이다.

사람이 사대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나라가 사대를 하면 망한다는 것은 력사의 교훈이 아닌가.

오늘은 개밥의 도토리신세처럼 외교교립이지만 래일에는 《토사구팽》, 즉 사냥이 끝나면 잡아먹히우는 사냥개풀이 되지 않겠는지...

본사기자 김정혁

개밥의 도토리신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시켜라!

광주의 낮은 오늘도 살아 있다

가리울수 없는 역사의 진실

역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고 지울수도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역사의 진실을 오도하고 비하하려는 역사외교행위들이 우습게 나타나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수세력들이 당치않은 거짓말을 꾸며대며 5.18광주인민봉기의 역사적진실을 마구 외곡하고 비하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광주인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파쇼독재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며 투쟁으로 자유와 민주, 참다운 새 생활을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역센 기상이 파시된 대중적인민봉기였다.

《유신》독재자가 거꾸러진 후 남조선에서는 사회의 자주와 민주화를 바라는 인민들의 요구와 념

원이 세차게 분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12.12속군쿠데타》로 군권을 강탈한 전두환일당은 《정권》장악을 위해 《비상계엄령》을 전역에 확대선포하고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데로 탄압해나섰다.

그것은 마침내 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으며 광주의 수십만시민들은 《비상계엄령 해제》, 《전두환 타도》, 《민주정부 수립》, 《민주개혁 실시》 등의 구호밑에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광주인민봉기자들은 손에 무장을 갖추고 탄압에 동원된 계엄군을 도시밖으로 내몰았으며 자유의 도시를 근 10일간이나 쫓곳

이 지켜냈다.

실로 광주인민봉기는 그 규모와 조직성, 완강성과 치렬성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사에 류례없는 대중적인민주화투쟁이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흘러갔지만 피로써 사에 새긴 자주, 민주, 통일의 그 절절한 념원은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력력히 살아있으며 민주항쟁용사들의 숭고한 념이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으로 불려주고 있다.

어느 한 여론조사에서 남조선청소년학생들의 대부분이 광주인민봉기가 다시 일어난다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대답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런데도 최근 남조선

보수집권세력내에서 광주인민봉기를 두고 《부면을 쓴 북의 특수군에 의한 남남전쟁 유발》이라느니, 《독자적인 광주민주화운동은 없었다》느니 뭐니 하는 해괴한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와 남조선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하여 광주시와 《5.18력사외곡대책위원회》와 같은 사회단체들은 《북군》이라고 매도한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이러한 망발을 철회는 보수세력들을 법적심판장에 끌어내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5.18광주인민봉기의 성격과 내용을 심히 외곡비하하는 망발들은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

니며 그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의 웅당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였다.

남조선보수세력이 생역지를 부리면서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모략적인 망발들을 계속하는데는 그들의 흥심이 깔려있다.

광주인민봉기가 있는지 어느덧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남조선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현 보수집권세력의 《유신》독재부활책동으로 하여 항쟁용사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는 란도질을 당하고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으며 민생고에 허덕이다 못해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날을 따라 더욱 늘어만가고있다.

이런 속에 지난해에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부패와

무능으로 눈을 편히 뜨고 수백명아이들을 바다물속에 생매장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악재까지 빚어졌다. 보수당국은 그 진실을 덮어버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못해 얼마전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시위에 나선 유가족들과 평화적시민들에게 고농도의 최루액을 쏘아대고 경찰방패로 닥치는대로 내리찍어 피투성이로 만들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련행해가는 파쇼적 폭거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독재와 폭압은 쌍둥이와 같다. 피를 즐기는 승냥이의 본성이 변할수 없듯이 현 보수집권세력은 독재의 칼부림으로 통치위기의 출로를 찾고있으며 날로 더욱 횡포한 기질을 드러

내고있다.

최근 성완중사건과 같은 각종 부패와 추문으로 최악의 통치위기에 부닥친 보수세력은 물에 빠진자 지푸레기라도 잡는다고 광주인민봉기를 기어코 공화국과 련결시켜 또 하나의 새로운 동족대결광대극을 벌려놓아 그 위기를 모면하려 발악하고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독재를 반대하여 싸운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민주화투쟁인 광주인민봉기를 외곡하고 비하하는것은 파쇼독재에 대한 찬미이며 민주화선렬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무이다.

미국의 지배가 계속되고 사대와 매국, 독재와 대결이 체질화된 보수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조선사회의 참다운 민주화도, 인민들의 초보적인 삶의 요구도 실현될수 없다.

본사기자 서 희



1980년, 광주에서 뿔어져나온것은 단지 민주화의 열망뿐이 아니었다. 통일에 대한 겨레의 쌓이고쌓인 갈망이었다. 외세가 강요한 분렬이 남조선에서 파쇼독재의 모양이 되고 인민들의 삶을 더욱 무참히 짓기고있기에 남녘겨레는 민주화투쟁현장에서 통일노래도 목청껏 불렀다.

통일이 어서 오라고 광주시민들이, 온 남녘이, 온 겨레가 목청껏 웨쳐왔지만 분렬의 년륜은 울해로 일흔번째의 돌기를 새기고있다. 광주항쟁용사들의 념이 고이 잡들고있는 무등산에 35번째로 철쭉은 피고 지었지만 아직도 련사들의 그 뜻이 어려있는 통일의 꽃은 피지 못하였으며 광주의 상징새-비둘기마

지 핵전쟁연습의 불구름에 휩싸여 깃을 쳐날을 창공을 잃어버린것이 현실이다.

가슴아픈 이 비극은 외세가 강요하고있는것이며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파쇼대결세력이 조장하고있는 것이다.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의 새 력사를 쓰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선의있는 호소에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한 북침핵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섰다. 그리고 반공화국베라살포,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려왔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남조선 《국회》에서 온 겨레의 규탄속

에 체제대결의 산물인 《북인권법》책동들이 발악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이에 따라 관계개선의 기회는 날아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최대로 증폭되었으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하기에 지금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도처에서는 분노한 민심을 담아 《제2의 민주화운동 시작하고 통일조국 세우자》,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해 청년학생들 견결히 투쟁하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기어 이룩하자》, 《반역(정권) 타도하라》,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함성이 터져나오고있다.

황영일



뒤풀이되는 《정권》 강탈행위

남조선에서 성완중사건으로 정계가 소란스러운 가운데 지난 10일 한 언론에 의해 현 집권세력이 지난 《대선》때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또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잡지 《시사저널》이 폭로한데 의하면 지난 《대선》때 현 집권세력은 공식적인 선거사무소에 10여곳이상 불법적인 선거사무실을 꾸려놓고 야당세력들을 비방증상하고 모해하는 여론공세를 벌렸다고 한다. 불법적인 선거사무실들은 부산시장 서병수가 관리운영하였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서 잡지는 현 집권세력의 불법적인 선거사무소중의 하나가 《에스트레뉴빌딩》이며 그곳에서 불법 SNS활동을 펼쳤다 18대 《대선》 하루전인 2012년 12월 18일 선관위에 적발됐다.》고 그 신빙성을 부여하였다.

남조선의 선거관련법에 의하면 《대선》후보로 나선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하나만 가지고있을수 있으며 정식 등록한 사무소가 아닌것은 불법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현 남조선당국은 선거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집권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현 집권세력은 또다시 헤어나올수 없는 위기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현 집권자의 최측근세력들이 저지른 특대형의 부정부패사건인 성완중사건을 리완구나 홍준표와 같은 몇몇 개인들의 불법정치자금사건으로 몰아도 마뻬 피리자르는 식으로 덮어버리려던 현 보수집권세력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으로 현 집권자를 내세우는데 적극 기여한 《공신》중의 한명인 부산시장 서병수가 덩이를 잡혔으니 성완중사건의 핵심은 불법 《대선》자금사건임이 다시금 명백해졌다. 여기에 더하여 현 집권세력이 불법적인 선거사무소까지 차려놓고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모해하고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벌린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혹시나 했던것이 역시나로 현 《정권》이 불법 《정권》이라는것이 만천하에 증명되게 된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등장하여 3년째지만 아직까지 지난 《대선》문제는 끝을 맺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정치사에서

류례가 없는 일이다. 정박은 《유신헌법》을 조작해냈다. 이러한 정치, 군사쿠데타로 《유신》독재자는 무제한한 권한을 거머쥐고 일거에 《총통》, 《전제군주》의 지위에 올라앉아 18년동안 《대통령》의 병거지를 뒤집어쓰고 독재정치를 실시해왔다.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 그 후예가 관권, 금권 등을 동원한 갖은 권모적방법으로 《정권》을 가로타고앉아 하나에서 열까지 《유신》독재의 폭정을 되풀이하고있는 것은 남조선정치의 후진성을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만평 《유신》부활



총련에 대한 일본의 치떨리는 탄압만행을 규탄한다

용납 못할 반총련, 반공화국적대행위

얼마전 일본당국이 공화국의 존엄을 해외공민조직인 총련의 일군들을 타당한 이유없이 마구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들의 《죄목》이란 공화국의 송이버섯수입과 관련한 《외환법위반혐의》라고 한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외환법위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들의 집으로 이른 새벽에 경찰을 내몰아 마구잡이로 쳐들어가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최인취급을 하며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른바 《법치국가》라는 일본의 불법무도를 보여주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다시금 실감하게 하는 폭거이다.

법치국가라면 법에 의해, 법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해나간다는 의미일진대 《법치국가》라 자처하는 일본의 법에는 제일본조선인들이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면 제일본조선인들은 그렇게 야만적으로 대해도 된다는 일본법이 따로 존재하는가.

제일본조선인들은 과거 일제의 《징용》, 《징병》에 의해 강제로 현해란을 건너간 피해자이고 그 후손들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일제의 가혹

한 탄압과 착취, 인간이하의 멸시와 구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제일본조선인들과 그 후손들에게 사죄와 배상은 못할망정 패망후부터 지금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오며 그들의 삶의 권리를 유린해왔다.

일제시기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이 한세기가 지난 오늘도 일본땅에서 뼈저리게 감행되고있는것은 우리 겨레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있다.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또 도의적 견지에서든 재일본조선인들에 대한 또 한차례의 인권유린과 민족차별은 《법치국가》 일본의 후진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당국의 이번 체포소동이 계획적이고 음모적인 총련압살책동이고 반공화국적대행위라는 것이다.

체포소동이 있는지 단 5분만에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의 언론보도기관들은 일제히 《조선총련의장의 차남을 체포》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이 사실을 요란히 보도했고 일본판방장관이 직접 나서 합동수사본부의 이번 폭거를 《법적근거》가 있는듯이 비호해나섰다.

이것은 총련을 《범죄단체》로 몰아 질식말살하려는 일본당국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정치탄압

의 각본에 따라 이번 체포소동이 벌어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당국이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에 탄압의 창끝을 돌리고있는것은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해외체침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위해 온 삼천리강토를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고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민족을 마소와 같이 부리던 최악은 시효가 없는 국제적범죄이다.

그러나 일본은 사회와 배상을 하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의 여론에 야만적인 인권유린과 민족차별, 군국주의부활과 체침책동으로 뼈저리게 대담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권유린의 경찰국가, 민족차별의 파쇼국가이며 군국주의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횡포한 범죄국가이다.

공화국과 우리 겨레는 괴물은 과거 괴악우에 총련탄압 등 엄청난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당국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지 않으며 준엄히 결산할것이다.

신기복

법도, 도의도 없는 깡패국가

총련일군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만행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격분에 이가 갈린다.

법을 어긴것도 없는데 총련일군들의 집을 강제수색하다 못해 이제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최고 랑을 채워 연행해갔으니 과거 조선인연행만행을 보는것 같아 가슴에서 분노가 막 터져나온다.

일본이 과거에 조선을 지배하며 우리 겨레에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리고도 모자라 침략의 역사에 대한 사죄는 고사하고 일제만행의 피해자들의 후손들인 제일본조선인들, 총련일군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탄압에 매달리고있으니 이런 깡패국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일본이야말로 세기를 이어 우리 민족에게 해만 끼치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수이고 파쇼국가이다.

조선속담에 죄는 지은 데로 간다고 하였다. 일본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총련탄압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국제적고립과 파멸을 면할수 없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김철국

죄악을 철저히 결산할것이다

일본당국이 부당한 구실을 내들고 공안당국을 동원하여 제일동포들에 대한 체포소동을 벌인것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고 총련을 말살하려는 불법무도한 깡패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

총련을 그 무슨 《인질》처럼 여기면서 그에 대한 탄압과 박해로 우리 공화국에 양갈음을 하려는것은 일본의 체질적악습이다.

그것이 도를 넘어 이제는 터무니없는 날조와 모략을 꾸며 제일동포들을

마구 잡아가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번 파쇼모략국을 통해 일본이 추구하는 목적은 불보듯 뻔하다. 총련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일본 사회에 살벌한 반공화국, 반총련분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한편 그것으로 우리 공화국에 압력을 가하자는 데 있다. 또한 임의의 구실을 대고 총련의 기관들을 아무때나 강제수색하고 제일동포들을 마구 잡아갈수 있는 전례를 만들자는 데 있다.

일본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에게는 우리 공화국이 있고 치솟는 대일적개심으로 가슴끓이는 7천만겨레가 있다.

일본당국이 총련과 제일동포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부당한 정치적탄압과 박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릴수록 백년속적인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적개심과 원한은 더욱 뼈에 사무치게 될것이며 그만큼 결산도 철저할것이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주강성

정권권력배분작, 전진책이

남조선의 보수 언론들이 현 집권자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많이 떠들고있다.

물론 《잘한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말이다.

반인민적악정과 북남관계과국, 외세굴종 등으로 민심의 규탄을 받고 팔머리를 앓고있는 집권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인가.

보수 언론의 여론조사와는 판이한 자료도 있다.

최근 남조선의 심리학교수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별로 일반주민 60명을 선정하여 평시에 집권자를 평가하는 일반주민들의 속마음을 조사하여 남조선잡지 《신동아》(5월호)에 소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집권자에 대한 지지도가 40%정도로 평가되는것과는 판이하게 주민들이 현 집권자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한다.

우선 조사에 참가한 주민의 60%가 현 집권자를 《사리에 어둡고 여러서는 통치자》로 찍었다는 것이다.

그 리유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 하기 때문에》, 《무능하고 게으르기때문에》, 《책임지지 않고 권력욕만 부리기때문에》, 《권력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행동을 하기때문에》 등으로

대답했다. 특히 《세월》호참사때 보여준 무능력, 정윤희 《국정》개입사건, 계속되는 《인사참사》 등을 보면서 《박근혜가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 《박근혜의 딱 막힌 모습에 할말이 없다.》고 개탄하였다는 것이다.

좋은 소리다. 정보원 《대선》개입사건과 성완중사건이 보여주는것처럼 현 집권자는 특대형부정부패로 《정권》을 가로챘으니 5.16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유신》독재자를 평가하는 권력욕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또 《열음공주》인지 《수첩공주》인지 《공주》로만 불리우던 현 집권자가 어떻게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알고 그들의 멍든 가슴을 달래줄수 있겠는가.

그러나 해외에 나가면 옷차림에나 신경쓰고 남조선에 돌아오면 청와대 팔방에만 내내 박혀있는 것이다.

결국 현 집권자는 지적능력이 2MB밖에 안된다고 비난받았던 이전 집권자보다 더욱 팔치거리라는 평을 받은셈이다.

다음으로 집권자가 《얼굴마담》밖에 안된다는 평이다.

이전에는 박근혜가 자기의 정책과 전략이 있는 정치가인줄 알았지만 지금에 와서보면 그런것이 하나도 없는 한갓 《얼굴마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월》호참사나 성완중사건에 대한 대응, 《기춘대원군》이나 정윤희 등의 현대판 《섭정정치》에 의거하여온 현 집권자를 볼때 철학이나 정책로선이 없으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제3자의 지지

에 의존하는것처럼 보이며 《명분》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그것으로 내외의 주목받는것을 좋아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집권후 실지 통치를 누가 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박근혜가 어떤 결정도 못 내리는 통치마비상태, 만화나 컴퓨터 게임에서 속다르게 형성된 폭두각시와 같다, 박근혜가 측근들에게 뜯어 먹히우고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더우기는 집권자를 《무능한 판료》라고 략인한것이다.

조사에 참가한 주민들은 현 집권자가 오래동안 정치판에서 굴러먹으면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무능한 판료》라고 하였다.

특히 지지세력이나 통치체제를 활용하여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데만 신경을 쓸뿐 통치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제 는 무엇도 기대하는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조선의 절대다수 주민들의 현 집권자에 대한 기대가 환멸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것이 진실이겠는가. 보수 《정권》의 시너, 어용나팔수가 되어 민심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보수언론의 조작된 여론조사이겠는가, 아니면 인민들의 얼어든 마음을 풀어내어 발표한 심리학교수들의 평이겠는가.

답은 보나마나 후자라는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집권자와 그의 썩은 정치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언제나 정확하다.

본사기자 김 현

본질을 비켜가는 성완중사건수사

남조선에서 성완중사건이 터진 때로부터 한달남게 지나갔다.

알려진것처럼 4월 9일 경남기업 회장 성완중이 자기를 정치적희생물로 삼은 현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표시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살하기전 성완중은 유서를 통해 전 청와대비서실장들과 현 비서실장,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 집권자의 최측근세력들에게 수십만US\$를 넘겨바치겠다는것을 폭로하였다.

그때로부터 40일을 가까이 하지만 사건의 진상과 해결가망은 보이지 않고있다.

성완중의 측근인물들과 증인들이 사실들을 인정하고 또 언론들에서 현 집권자의 측근세력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여러가지 증언들을 하나하나 폭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무슨 큰 일이나 칠것처럼 하던 검찰은 기본범죄자들은 외면한채 결가지만 다치면서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주요언론들과 여론들은 남조선검찰이 정치검찰로서 살아있는 《절대권력》인 현 집권자의 눈이 무서워 사건을 얼버무리려 하고있다고 평하

고있다.

일리가 있는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가 요구한것은 지난 2012년 《대선》때 성완중이 《새누리당》에 섬겨바친 정치자금문제였다.

그러나 남조선검찰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위급한 순간에 도달은 도마뱀 꼬리자르는 식으로 현 집권자가 제출로 삼은 전 《국무총리》 리완구나 경상남도지사 홍준표에 대한 수사로 막을 내리려 하고있다.

그것도 그렇것이 검찰은 성완중이 리완구나 홍준표에게 건네준 검은 돈은 2012년 《대선》과는 상관없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였기때문이다.

이들은 여러 증인들을 통해 돈을 받은것이 확인되어 더이상 빠질 출로가 없었다.

이의 전,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이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것을 구실로 수사도 하지 않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검찰이다.

성완중사건이 남조선정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는것은 사실상 이 사건이 불법 《대선》자금문제와 직결되어있기때문이다.

4월말 중남아메리카행각

6명의 부정부패혐의자들은 지난 《대선》시 현 집권자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손발노릇을 하며 자금을 건어들이고 통제하던 자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수사포기는 결국 불법 《대선》자금문제에 대하여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성완중은 자살하면서 2012년 《대선》때 박근혜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속했던 주요인물들에게 수십만US\$를 넘겨주었다는것을 폭로하였으며 이 사실은 검찰이 증인들을 심문하는 과정에 확인되었다.

그런데 남조선검찰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느니, 시기상조라느니, 《대선》자금은 후에 수사하겠다고느니 하면서 불법 《대선》자금의 구입경로와 규모, 사용정형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고있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대선》자금은 《관도라의 상자》와 같이 정치권에 몰고올 파장이 상상을 초월할것이다, 검찰이 엉뚱한 수사방향으로 집권세력을 감싸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가관은 보수집권세력이 이번 사건을 정치권전반에 대한 《개혁》문제로 확대시켜 유아무야해보려고 획책하는것이다. 지난 4월말 중남아메리카행각

을 마치고 돌아온 현 집권자는 즉시 《국무총리》 리완구의 목을 때고 《대국민메세지》를 발표하는데 이어 성완중사건이 과거의 낡은 정치때문에 발생된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해 떠들었다.

특히 그는 로무현집권시기 성완중이 두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데도 문제가 있다느니, 그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느니, 《정치개혁》의 견지에서 수사대상을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면서 이번 사건에 야당들까지 끌어들이려 《물타기》해보려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8일에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후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틀리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느니, 《그동안 력대 《정권》마다 부패청산을 웨쳤지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다.》느니 하며 성완중사건이 자기의 불법 《대선》자금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권전반의 문제인듯이 사실을 터무니없이 외곡해나섰다.

현 보수집권세력이 리완구나 홍준표와 같은 결가지들을 잘라버리고 성완중사건을 호지부지하여 불법 《대선》자금문제를 흑막속에 묻어 버리려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지 밝혀지게 될것이다.

정보원과 남조선군사령부와 같은 권력기관들을 동원하는것과 함께 검은 돈을 뿌리며 불법적으로 집권한 현 남조선당국은 《부패정권》의 오명을 언제 가도 벗지 못하게 될것이다.

김연희



반 《정부》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노동자들